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 썩 야권연대 최대 이슈로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 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현 정부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는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창당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의 정치 지형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광주일보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이슈 및 변수를 세 차례로 나눠 진단한다. <관련기사 3·4·5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창당을 선언하면서 6·4 지방선거는 지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연대에 대해 민주당은 혁신정쟁을 해야 한다며 연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새정치신당도 "그들권력 시각의 발로"라며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도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야권 단일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는 분위

민주당 새정치신당도 "3자 구도땀 새누리 어부지리"

여론조사도 단일 후보 유리 김한길 대표 수용 시사 안측 불가론서 한발짝 후퇴

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연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경우 양당이 이를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벌써 상당수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는 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야권 단일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는 분위

와 함께 지난 1일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남녀 74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3.59%포인트) 결과, 3자 구도 하에서는 새누리당 30.3%, '안철수 신당' 21.6%, 민주당 12.3% 순이었다. 반면,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연대해서 단일후보는 낸다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단일후보' 38.1% 대 '새누리당 후보' 34.1%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에는 '해야 한다'는 26.8%, '각각 후보를 내야 한다'는 51.5%로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정치권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야권연대를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연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지율은 야권 단일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야권연대에 대해 미리 차단막을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권연대의 분위기는 조금씩 감지된다. 우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30일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양측의 정치혁신, 새정치에 대해 경쟁 결과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정치 발전·혁신, 새정치에 역행하는 거 아니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야권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 의원 측에서도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 발언 일색이었던 이전과 달리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여준 새정치 의장은 지난 2일 야권연대와 관련, "많은 국민이 (우리 의 입장을) 받아주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로 딜레마"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최근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스스로 변신하는 노력과 혁신의 과정 없이 단순히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식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도 "나중에 그 상황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상황에 따라 야권연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야권연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지기자park@



갈매기도 꼬막도 기름범벅

3일 기름유출 사고로 시꺼먼 기름띠가 뒤덮은 여수시 삼일동 신덕마을 바닷가에서 온몸에 기름이 묻은 갈매기의 힘겨운 날개짓을 다른 갈매기가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지점에서 입을 벌린 채 폐사한 꼬막.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철새서 첫 AI 확진

신안·영암 폐사 청둥오리...인근 닭 농가 이동제한

신안과 영암에서 죽은 채 발견된 청둥오리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는 3일 "신안과 영암에서 수거한 청둥오리 사체를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AI 발생기간에 이 지역 오리에서 3건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지만, 철새는 처음이다. 전북에서 시작된 AI는 가장오리와 큰기러기 등 철새가 감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어, 전남지역 철새의 AI 확진 판정에 따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철새는 곳곳에 분변을 뿌리고, 이를 제거하기도 힘들어 피해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 들어와 영암 덕진 1건을 제외한 3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도는 AI가 발생한 농가 주변 3km 안에 있는 19개 농가의 닭·오리 35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유출량 16만4000ℓ...초기 추정치 205배

중간조사 결과...사고원인 '과속' 10km 이내 오동도·남해까지 피해

여수 기름 유출

지난 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유조선이 원유 하역시설을 들이받아 바다로 유출된 기름이 16만 4000ℓ (약 164톤)에 이른다는 해경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 직후 800ℓ로 전해진 것의 205배, 정부가 지난 1일 추정한 유출량(1만ℓ)의 16배에 달하는데다, 일주일도 안돼 유출량이 고추처럼 늘어나면서 당국의 초기 대응 및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

고 있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 측의 안일함과 방제정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해경과 업체 측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2·6면> 여수해경은 3일 오전 해경 중회의실에서 '우인산호 충돌 오염사건' 중간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충돌 사고로 발생한 송유관 3개가 파손돼 ▲원유 6만9000ℓ ▲나프타 7만ℓ ▲유성 혼합물(불과 기름을 씻는 물질) 2만

5000ℓ 등 모두 16만4000ℓ 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유조선 '우인산'호가 들이받아 파손된 원유(지름 36인치·약 90cm) 나프타(30인치) 그리고 원유관을 씻기 위한 물 등이 통과하는 원유보조관 등 3개 송유관에 들어있는 기름 용량 등을 근거로 이같은 유출량을 추정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해경이 내놓은 유출량은 200ℓ들이 820드럼에 달하는 양으로 사고 직후 알려진 800ℓ의 205배, 해경을 중심으로 한 '사고수습대책본부'가 1일 추정한 1만ℓ의 16배에 이른다. 정부

당국이 하루 만에 16배가 차이가 나는 유출량을 내놓는가 하면, 일주일도 안돼 세 차례나 날뛰기하듯 유출량을 늘려 내놓은 것이다. 방제 당국이 추정 유출량을 근거로 방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초기 대처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대응도 미숙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한 대목으로, 일각에서는 유출량 축소 의혹마저 제기된다. 유출된 기름도 조류와 바람을 따라 확산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해역으로부터 10km 이내 여수 오동도를 넘어 남해군 염해, 신촌 등 양식장 피해

도 예상된다고 경고, 양식 어민들은 초긴장 상태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경은 중간 조사 결과, 우인산호에 탑승한 여수항 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2명이 원유부두로 접근을 시도하던 중 일반적인 접안 속력(3~4노트)의 2배가 넘는 7노트의 속력으로 부두 방향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도선사 및 선장의 과실 여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정화기자 chkim@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인증 국제품질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전국점망 서울 삼일병원 (담양공관 상일동 입구) : 022276-0577-9 강남점 (강남고속터미널 옆) : 023477-5110 홍릉점 (금강제약 옆) : 02733-0220 송파점 (석촌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안성점 (구,서민회관 옆) : 02421-2288 부평점 (부평역역 앞) : 02517-5110 수원점 (보문로) : 03126-6655 안양점 (백산소방2001 어울림 옆) : 031469-0110 평택점 (평택역 옆) : 031658-5110 용인점 (용인네거리) : 031336-1090 오산점 (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점 (롯데백화점 옆) : 032328-4400 남양주점 (현대 호평역 옆) : 031593-9800 부산 서면점 (서면로터리) :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부동점 (우영국점 옆) : 051266-7200 울산 울산점 (공업타운로터리) : 05226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옆) : 055297-6000 전주점 (중앙로터리) : 055745-9870 대구 동원점 (동원네거리) : 053425-4440 상덕점 (삼덕네거리) : 053425-1511 남일동점 (아라미대입구) : 053425-7575 경북 포항점 (해거리) : 054244-5110 안동점 (구, 안동농고네거리) : 054859-2248 광주 광주점 (금남로 47역 사거리) : 062225-5110 광주점 (백운광장) : 062651-4477 전남 순천점 (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 : 061752-8845 전북 전주점 (전북로터리) : 063252-5728 군산점 (구, 서흥은행 옆) : 063446-0198 익산점 (북부시장네거리) : 063838-5600 남원점 (시정네거리) : 063632-2626 대전 대전점 (도청 옆) : 042254-5110 대전점 (충훈로터리) : 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옆) : 042255-4900 충남 천안점 (천안역 옆) : 041553-2888 광주점 (공주순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 (현,개포로 구, 속리산 고속육교 옆) : 043222-1177-8 충주점 (삼원로터리) : 043852-1414 강원 원주점 (원주역 옆) : 033647-0588 원주점 (원주공공시장 옆) : 033253-5110 제주 제주점 (영양로터리) : 064753-4358

경기 안성점 (02419-3388) **충청** 천안점 (041553-2888) **전남** 순천점 (061752-8845) **전북** 전주점 (063252-5728) **경남** 마산점 (052268-2283) **경북** 포항점 (054244-5110) **충청** 천안점 (041553-2888) **전남** 순천점 (061752-8845) **전북** 전주점 (063252-5728) **경남** 마산점 (052268-2283) **경북** 포항점 (054244-5110)